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인दार망

33 천이었다. 도리천이었다. 육계 6천 가운데 제2천이었다. 수미산 정상이었다. 수미산은 우주 속의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묘고산(妙高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산이 바로 이 세상이 허공법계로 이어지는 우주 입문(入門)의 산인 것이다.

이제 천인이 된 우녀가 먼저 와 있던 인담을 알아 보았을 때의 기쁨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도 깊이 맺어진 수령의 첫이었던 그들은 이성을 넘어선 이성이었고 동성을 넘어선 동성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묵한 목소리가 아니면 안 되었다. 33천은 32천과 제석천을 합친 것이다. 하늘 속으로 솟아난 수미산 정상에 그런 찬란한 세상이 있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그 세상은 4면이 각각 8만유순이다. 그 위의 으르르한 32개의 성이 있고 그 성을 주재하는 천신이 있다. 그 복판에 제석천이 머무는 선견성(善見城)과 수승전이 있다. 그 수승전은 수많은 종류의 보주(寶珠)로 분했었는데 그 규모는 다른 천궁이나 성들을 다 가릴만 하였다.

7만7백의 방에는 각 방마다 정비 7천녀(七千女)와 그 천녀에 속한 7천녀(七千女)가 있으므로 49만4천9백의 정비와 49만4천9백의 천녀가 있는 것이다.

### 눈부신 빛의 화염 도리천에서 만난 지난 생의 무욕도 도반들은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다

아무튼 그 수승전은 보주가 달린 그들이 드리워졌는데 그 그물코마다 달린 보주가 빛을 내어 그 보주그림자가 빛을 받아 빛나는 것이다. 이런 빛은 빛의 그림자가 다시 빛을 낳고 또 그 빛이 빛을 낳으면서 서로 빛이 되는 그 일체 광명의 교향(交響)이 끝없이 펼쳐짐으로써 거듭거듭 다함없는 상주(常住)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과연 눈부신 빛의 화염이다. 그러므로 우녀의 눈안을 어찌 지그시 감지 않았는가. 그는 인담과 만난 한동안도 결코 짧거나 길거나의 분별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충분하였다.

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천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곳의 1주일은 인간의 1백년에 해당하며 키는 1유순이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여섯살 정도가 되는데 우녀는 어떤 일인지 짐은 시절로 되었던 것이다. 수명은 1천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태어난 우녀 역시 최소한 1천년은 지나야 다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허공법계의 기없는 우주 가운데서 4천년이나 만년이란 할나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우녀는 인담 말고 무욕도에서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이 천상의 선법당에서 만



세상에서 헤어졌다가 여기 와서 만난 뒤 인지 그런 시간의 차를 뛰어넘어서 그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뜻으로는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풍기는 아름다움이 더 매력하였다. "합두! 오랜만입니다." "아니!" 합두도 우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우녀와 똑같은 감화로 당장 우녀를 알아보았다.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뜻이 없다. 오직 그 말 한 마디는 기쁨의 순간이나 감격의 순간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지난 생의 무욕도 동료들은 어느덧 이 말 한 마디가 그들의 첫 인사가 되어 그것이 다른 생에서 이 천상으로 온 천인들에게까지 번져감으로써 도리천의 인사

를 장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날 그가 한적한 산기슭에 남지 않았다. 그때 한 미친 사내가 발광한 나머지 땅바닥에 널부러져 자고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배행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내의 극정을 알아보라 하였다. 알아본즉, 사내는 여왕을 사모하다가 미쳤다 하였다. 여왕은 그 사연을 듣고 한동안 평상에 잠겼다가 말없이 자신의 금팔찌를 꺼내 그 잠든 미친 사내 가슴위에 놓아주고 떠났다. 미친 사내는 잠 깨어나 금팔찌가 바로 여왕이 놓은 것임을 알아 그 사람의 기쁨 때문에 몸속에서 불이나 그 몸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

이나 이곳은 무엇하나 구애되는 바 없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아무런 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물안개 한 자락으로 저어버렸다. "아니로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합두가 떠올랐다. 우녀는 그 자신보다 합두가 인담과의 합신(合身)에 어울린다고 여겼다. 그뿐더러 인담과 합두는 전생의 어느 시절인 동행 천불동에서 남녀로 지낸 적이 있는지 모른다. 우녀는 인담을 청한 다음 합두를 청하였다. 우녀의 거처는 선견성 바로 옆의 상행천(上行天) 한 누각이었다. 그는 두 천인에게 진지하게 사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권유의 말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방안의 향기조차 꼭 멈춰고

## 우녀는 인담과 합두를 청해 서로 사랑할 것을 권유하고...

기억이란 그들의 지난 생과 지금의 생을 다른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시(同時)로 받아들이는 천상의 황홀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어찌 오늘이 오늘날이고 어제가 어제 만인가. 어찌 오늘이 내일이었어 오늘날이 됐는가. 하늘 속의 행복은 그런 시간 속의 경계들을 때로는 하나이게 하고 때로는 여럿이게 하면서 시간이야말로 극락임을 보여주었다. "오랜만입니다." 하도 박찬 나머지 옛 인삿말이 나왔다. 인담의 목소리였다. "오랜만입니다." 마치 인담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처럼 우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인간세상 그대로 우녀의 그 그

이곳에서는 만날 생각만 내면 바로 만나게 되어 있다. 두 천인이 저마다의 일을 위해서 헤어진다 해도 그것이 아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천궁의 바깥에는 중거원(衆居苑)이 있어서 모든 천인들이 노닐며 타는 거마들을 대령하고 있다. 추악원(醜惡苑)은 다른 하늘과의 전경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무기가 있다. 잠림원(雜林苑)은 천인들이 즐겁게 노는 곳이고 희림원(喜林苑)은 지극히 좋은 즐거움이 다함없는 곳이기도 하다. 본디 이 33천의 천상세계는 한갓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다. 그래서 선견성의 순공으로 된 천상은 그 부드러움이 솜뭉치와 같아서 그것을 사본사본 밟을 때는 발자국이 나는데 그런 발자국을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

날 수 있었다. 그가 선법당에서 그들의 세상인 이곳 33천이 텅 비어버릴 날이 언제인가 라는 과제로 토론하는데 바로 우녀의 등에 손을 얹은 뒷자리의 천인이 있었다. "인 도리천이 가득한 도리천보다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주인공이었다. 가 바로 우녀 뒤에 앉아 있는 합두였던 것이다. 그 목소리는 전쟁 저쪽의 사바세계 그대로의 짙은 듯한 목소리였다. 맞춤형의 새소리를 조금씩 섞어서 그것을 흐르는 물에 적신 그런 느낌이 드는 합두의 그 영롱한 목소리였다. 우녀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뱃뱃이 지난 뒤인지, 아니면 밤금 그

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녀는 이곳에 와서 차츰 이곳의 천상락(天上樂)을 누리면서 그 자신의 공부를 짝박 잇을 편 하였다. 너무나 즐거운 나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법당의 동쪽 탑원(塔園)에 가서 탐을 구경하다가 선녀탐을 보게 되었다. 정확히는 선덕과 지귀를 함께 기리는 탐이었다. 선덕이냐? 그것은 사바세계 고대의 신라 선덕여왕이 아니던가. 지귀냐? 그것은 선덕여왕을 감히 사랑한 미친 사내가 아니던가. 신라 선덕여왕은 원효를 마음속으로 흠모하였다. 그러나 여왕은 나라의 위엄 때문에 탐시 자유롭지 못하였다. 여왕이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넘보는 일이 많아 9층탐을 세워 그것으로 위엄

여왕은 일등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은 목계 제2천 도리천이라 하였다. 바로 33천이었다. 그는 죽은 뒤 33천에 태어났다. 그곳에 조금 먼저 태어난 지귀와 만나서 평등한 천녀와 천남으로 신적(神)의 사람을 나눌 수 있었다. 밧밧이고 인간세상의 몸으로 돌아가 성의 기쁨을 누리고 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상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다른 세상-그 세상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으로 떠난 뒤 제석천은 여의지천(如意地天)의 주창을 들어 그들 선덕과 지귀의 탐을 세웠던 것이다. 우녀는 인담을 생각하였다. 그 자신도 인담과 천상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저 무욕도의 수행시대는 그런 생각마저 깊이 삼가해야 할 노릇이었

은한 음악조차 멈춰서 괴괴하였다. 합두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녀의 배려와 인담에의 오랜 소원이 합쳐진 감격인 지도 몰랐다. 우녀가 그의 누각에서 나갔다. 그곳에 남겨진 인담과 합두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천상 애욕이 우녀의 법에 의해서 승화되었으므로 더이상 성행위와 같은 육락은 바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무욕도 도반들과 함께 모입니다"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아 무욕도!" 합두가 눈물을 새로 글썽였다.

그림·조향숙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 '97 문화유산의 해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 안산 (0345)411-4580
- 목포 (0631)281-2534
- 부산 (051)634-5114
- 광주 (062)375-9986
- 속초 (0392)636-3923
- 인천 (032)461-3461
- 강릉 (0391)651-9317
- 영주 (0572)34-3429
- 대구 (053)788-8008
- 대전 (042)625-1080
- 공주 (0418)55-0020
- 청주 (0415)63-3873
- 진주 (0591)747-0106
- 예산 (0458)33-5097
- 포항 (0542)252-7749
- 마산· 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획입니다. ■